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29~12장2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요즘 밤에 잘 주무시는지요? 8월도 이제 중순이 지났는데, 여전히 밤에는 덥습니다. 온도 1도 상승에도 맥없이 무장 해제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뤘던 날이 있으시죠? 온도가 올라가면 몸의 열을 식히려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스트레스와 유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합니다. 밤에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온도 몇도 차이에 인간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좌우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도 온도 몇도 차이에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 전에 National Geography에서 만든 “지구를 위협하는 섭씨 6도의 비밀”에 보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매년 30만 명이 더위와 전염병으로 사망합니다. 2도 상승하면 열대지역 농작물이 감소해서 약 5억 명이 기아에 고통당하고, 33%의 생물이 멸종 위기를 겪게 됩니다. 3도 상승하면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10-40억 인구가 물부족을 겪으며, 50%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4도 상승하면 유럽의 여름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오르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가 사막으로 변하며, 극지방 생물이 멸종합니다. 5도 상승하면 뉴욕과 런던이 바다에 잠겨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6도 상승하면 사막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대도시들은 물에 잠기거나 폐허가 됩니다. 6도가 상승하면 인류문명의 종말을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를 지탱하는 세계도 참 연약합니다. 튼튼해 보이고, 강해보이지만 약하디 약한,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 적용됩니다.

시간의 차원에서도 인간은 참 작은 존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의 친구 베소가 사망했을 때, 자신의 삶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친구의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나보다 조금 앞서서 이 이상한 세계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분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봐도 인간은 참 미약한 존재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먼지 정도를 차지하고 시간적으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시공간인데, 여기서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 보이는 것은 인간을 쉽게 속이고, 보이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에 매어있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 없이 홍해에 뛰어들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도는 일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계략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벽을 돌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녀 라합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던 여인 라합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목숨을 걸고 믿음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모두 믿음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인들은 부활한 가족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더 추앙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 온 믿음의 선조들의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특성을 통해 우리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자기 편리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

우선 그들은 자기 편리를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경도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떠났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춘 이들입니다.

인간의 큰 욕망 중 하나가 편하게 살려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인류는 좋게 말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편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밥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설거지하는 로봇, 택배 로봇, 전쟁 로봇 등 인간이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로봇으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로봇이 다 해준다면 인간은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인류는 자기파괴의 길에 빠질 위험성이 큼니다. 구약에 등장한 왕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독재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로봇같은 수족들을 두고 살다가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자폐적인 삶을 살다보면, 초월의 영역과 믿음의 시야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리를 추구했다면 홍해를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의 만나보다는 나일강의 소산이 훨씬 입에 즐거움을 주었을 겁니다. 자기 편리를 추구했다면 채찍을 맞을 이유도, 감옥에 갇힐 이유도, 산과 동굴을 헤매고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 자신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곳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사람들의 기대나 자신의 욕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늘 자신을 넘어서고 초월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 2.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이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에 길이 갈라졌다고 해도 언제 강물이 합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주변을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것도 전쟁의 측면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홍해와 여리고성은 그래도 그대로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현실에서 승리를 갖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이유는 현실에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통을 주는 별별 게 다 나옵니다. 돌, 채찍, 칼, 톱, 무시무시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문도구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도 꺾임치 않고 살아간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함께 있고,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으며, 성공과 실패가 씨줄과 날줄로 우리 신앙 여정에 배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패할 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 비난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비난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받은 비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시험에 떨어졌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신앙인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잘못된 비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영역이 아닌 부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존재, 관심에 굶주린 존재로 채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같은 믿음을 보여도 승리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좋은 믿음 때문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충분한 믿음 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넘어 곡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구름 떼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인들 중에는 승리와 생존을 일시적으로 맞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증인들에는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실패와 죽음과 양립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초월하게 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또 다른 비난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계시거나 한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왜 자신의 자녀들이 곤경에 빠지도록 놔두는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부모의 본분을 상실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이 공격적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승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승리와 동일시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이고, 실패이며, 우리는 헛똑똑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에 종속된 믿음이 아닙니다. 승리나 성공마저도 초월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삶에서 성공할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삶에서 실패할 때, 슬픔입니다. 하나님께 거리를 두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시간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깊이 묵상할 기회이며, 삶 너머의 초월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관자이고,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히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 3. 거주 외국인으로 살았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전세계적으로 나그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신드롬이 나그네에 대한 차별과 분노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주민에 대해 비난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에 침묵하는 미국의 분위기 또한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수면에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는 마치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에 비춰볼 때, 한 인간이 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고, 시간에 묻힐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남긴 발자국에 시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그네이며, 우리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혹시 우리가 잘못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영웅의 실종의 시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유명 인사 홍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세계와 한국은 마틴 루터 킹도, 만델라도, 고르바초프도, 민주화 운동가도 다 잊고 그저 모두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나마도 엄청난 빈부격차로 인해 인류 역사상 경제가 가장 발전했다는 지금 [10]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참혹한 세계를 만들어놓았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배부른 돼지 앞에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초라해진 시대, “배부른 돼지”를 부러워하고, 탐욕의 웅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은 당혹스럽지만, 우리 시대 인간상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가야할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는 토대를 잘 다져놓은 자리가, 실제로는 떠나야 할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머물러 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나그네의 자세입니다.

2019년을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났고, 8월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살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물리적 시간의 근접성만큼 우리의 생각, 의지, 삶의 방향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님께 선 이 아침, 우리 믿음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입니까?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가는 삶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먼지이며 순간인 우리는 풍파에 휩쓸리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구름 떼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우리 삶의 경주는 “믿음으로” 먼저 살아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경주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위한, 내 편리를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고,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머물고,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구름떼 같은 증인들 앞에서 주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